

사설

내각제에 기댄 이유

김종필 자민련 총재의 임기내 내각제 개헌 제의가 정치권에 적지 않은 파문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김총재는 지난 5일 '현행 헌법상 대통령 선거는 현직 대통령의 임기만료 40일 내지 70일전에 하도록 되어 있어 내각제 개헌을 한다면 내년 1월 10일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서 이런 계획에 따라 내각제 개헌을 추진할 경우 12월 18일 대선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주장. 내각제 개헌을 위해 대선을 연기하자'는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김대통령은 헌법에는 손을 대지 않는 것이 기본 방침이었고 대통령제를 선택하고 있는 우리당의 정강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면서 일단 김총재의 제안을 거부하고 나섰다.

하지만 김대중 국민회의 총재는 "야권 후보 단일화 합의를 위해 무슨 노력이라도 할 생각이며 내각제 개헌을 수용할 용의가 있다"면서 "자민련과 대등한 위치에서 공동집권에 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권도 신중한 반응을 보이긴 했지만 당차원에서 논의해 보겠다는 입장을 취해 이전의 내각제 불가 방침에서 한 발짝 물러난 모습을 보였다.

김총재가 느닷없이 대선 연기와 내각제 개헌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선데에는 9월 말로 예정된 DJP연합이 김대중 국민회의 쪽으로 기울고 있는 데다 여권이 후보 교체론 등으로 복잡한 상황에 처하게 되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내각제개헌에 실낱같은 희망을 거는 것이 아닌가 하고 추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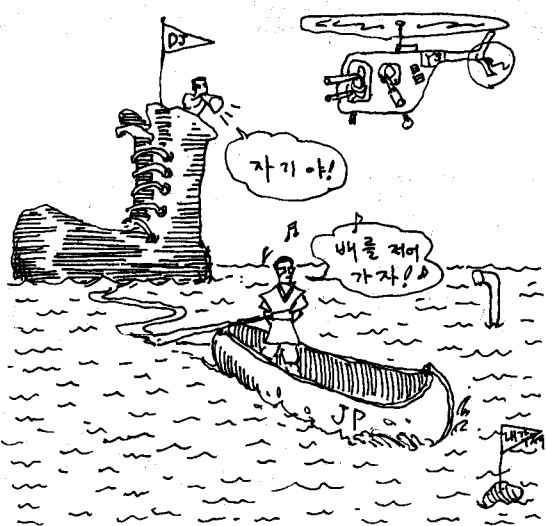
그러나 그 사정이 어찌되었던 대통령 선거일을 불과 석달 남짓 남겨놓고 터져 나온 이 주장은 그 저변에 국가를 위한 그 어떤 고려도 담고 있지 못한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하다. 여당에서 대선 후보가 나온지 40여일이 지났고 선거 분위기가 이미 조성된 마당에 무슨 임기내 내각제 개헌인가?

헌법을 바꾸어야 할만큼 중요한 문제를 카드놀이하듯 자신의 정치적 수 단지기에 이용하는 것은 국가발전을 위해 몇십년 동안 정치권에 몸담았던 사람이 취할 행동이 아니다.

내각제가 필요하단 말로 정말로 많은 논의와 연구의 시간들을 가져야 할 것이다. 최근의 전·노사면 신한국당의 후보교체론과 마찬가지로 원칙을 철저히 무시하고 당리당략만 쫓는 내각제 논의라던 일고의 가치도 없다.

경희만평

김진우



"고무신 거꾸로 신기...?"

세론

뒤로가는 교수재임용제 개정 논의

교육부 통제속 대학자율 되서리

획일적 원칙적용...대학특성화 요원

오세운

(편집장사)

교수임용에 대한 개정 작업이 한참 진행되고 있다. 기존에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했던 교수임용 제도가 많은 폐단과 오류들을 양산한다는 일부의 문제제기를 흔쾌히 받아들인 교육부의 조치인 것이다.

덕성여대 사학과 한상권교수의 재임용탈락 문제로 인해 돌출된 교수재임용제도에 대한 개정 의견들은 안건 상정에 따라 일단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그러나 교수재임용제도가 어떤 식으로 바뀌든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문제점들에 대한 최후 처방이 교육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우선 필자를 안타깝게 한다.

국립현대미술관 사립대 교원들에 대한 형평성을 이유로 교수는 정년까지, 부교수는 5년에서 6년으로 임용기간 연장등의 변화된 결과만큼은 일단 논의로 하자. 그러나 교육부가 전면에서 재임용에 대한 일부

원칙을 대학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마치 예전의 막강했던 교육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간담이 서늘하다. 아니 지금까지도 권력의 막강함을 경험하고 있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자율이라는 용어를 몸으로 체험하기에는 우리대학의 경험이 너무 부족하지는 않았나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대학자율은 시기상조(?)

우선 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덕성여대의 경우부터 살펴보자. 덕성여대 사학과와 한상권교수는 사학분야에서 나름대로 학자로서의 명망과 다양한 학술활동을 통해 덕성여대가 규정한 교수 재임용심사에서 탈락할 만한 뚜렷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었던 것으로 평가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재단에 대한 비판세력이 라는 이유를 들어 재임용심사에서 탈락시켰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한교수는 그후 현재까지도 복직을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이번 덕성여대 사건을 보면서 과연 대학에 자율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지부터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 교수재임용제는 학고나 사회 각종 문제들에 대한 교수들의 비판기능을 약화시키는데 사용되는데 등 고유의 목적보다는 억지능적인 모습들을 비일비재하게 보여왔다. 이번 사건 또한 재단에 비판적인 한교수에 대한 보복성 인사라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이는 교육부 감사에서도 일부 드러난바 있다.

93년부터 전체 재임용자중 탈락자가 0.2%밖에 안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한교수의 임용탈락은 학내뿐만이 아닌 교수사회 전체의 반발을 불러오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재단의 합리적이지 못한 행정이 불리일으킨 사건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자율과 통제 사이에서

교수재임용제는 지난 75년부터

대학의 학문연구와 교수들의 안일한 연구풍토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한 제도이며 약간씩 수정되면서 20여년간 시행되어왔다. 물론 교육의 취지보다는 교수들의 사회활동 위축등의 기능이 부각되었던 시대도 있었지만 일부 교수의 안일한 연구자세와 경직된 관점을 방지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교수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과 방법, 절차 등을 법률상에 명시, 각 대학에 일괄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현재 대학마다 특성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학문의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고 배출되는 자원이 나름대로의 학풍을 지니고 사회에 진출하는 등의 특성화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교육 공급자의 독특한 색깔과 영역을 구축해야만 한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교육부에서

세·시·봉

'정의봉'이 무섭지 않는고?

김동욱 시사부장



언론계 곳곳에 아직도 '국민화합'을 주장하며 사면을 외치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이 모두 TK(대구 경북)세력을 위시한 것이라 생각된다. TK세력이 현 우리사회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기득권층으로서 TK가 올바른 역사관을 가졌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데서 지금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듯 싶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대구 고창집에

있다가 검찰로 부터 소환을 당할 때 '전선생'을 못 데려가게 완력으로 저지하기도 하고 5·18관련자인 장세동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석방을 위해 출신 고등학교 동문들이 서명운동을 벌이는 곳이 바로 TK지역이다. 이러한 단편이 전체의 윤곽을 짐작케 한다던지나친 왜곡일까? 왜 TK는 과거 박·전·노 3인의 행적을 보고도 전혀 변하지 않는가? TK만이 이 땅위에 군림해야 한다고 보는가? 그렇다면 70%의 한국인이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 짓고 전·노를 사면하자. 그러나 진정한 역사바로세우기를 원하는 70%의 국민이 있는 한 전·노는 백범의 암살범 안두희를 비명에도 보냈던 '정의봉'을 평생 조심해야 할 것이다.

PC 통신원

코리안특급 군대보내기

박찬호 병역문제 찬반의견 엇갈려

코리안 특급의 운행기간에 군대를 놓아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최근 메이저리그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는 코리안 특급 '박찬호'의 병역의무에 대한 논쟁이다.

이회창(신한국당 대표)이들이나 고위층 자녀의 군복무문제와 관련하여 병역에 대해 국민여론이 민감해 진 탓인지 이에 대한 관심이 계속 고조되어 가는 듯 하다. 박찬호 선수는 대한민국의 신체건강한 젊은이이므로 원칙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메이저리그에 진출하였고, 뛰어난 피칭으로 15승을 눈앞에 두는 등 국위선양에 크게 이바지 하고 있으므로 군대에 보내선 안된다는 여론도 일고 있다.

PC통신 천리안에서도 '박찬호를 과연 군대에 보내야 하나'에 대한 토론방이 개설되어 활발한 토론이 전개되고 있다.

군대에 보내선 안된다는 입장에선 박찬호가 지금은 한창 잘 던지고 있지만 군대생활로 몇 년씩이나 야구를 쉬게 되면 지금만큼의 역량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고 결국은 한 젊은이의 장래를 망치는 결과를 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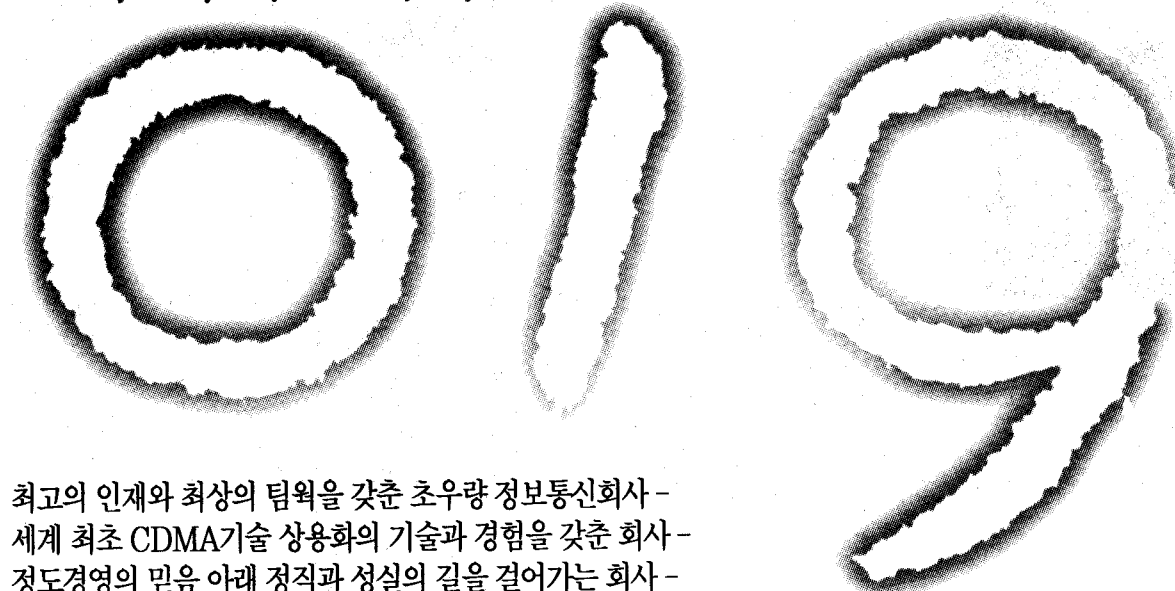
래 할 수도 있다고 한다. (ID:TJ-0920 등) 또한, 해외동포에게 한국인으로서의 긍지를 갖게 해주는 점이나, 외교관보다도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외교적 영향 등을 이유로 들어 민간외교관 자격으로 군복무를 면제해 주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ID:S0554S,PROV1 등)

반면 군대에 보내야 한다는 입장에선 박찬호가 아무리 뛰어난 야구 선수로 한국의 위상을 높인다 해도 그는 단지 수백명의 메이저리그 중의 한 사람일 뿐이며 어느 한 개인에게만 병역면제의 특혜를 줄 수는 없다고 한다. (ID:BUKAK) 박찬호의 노력이나 업적을 비하해서는 안되지만 단순히 지금의 열기만으로 군면제 문제를 다루는 것은 장기적인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다. (ID:-CNC94)

박찬호의 병역문제가 큰 이슈가 되는 것은 그만큼 그에게 거는 기대가 크기 때문일 것이다. 어떻게 결론이 지어질지는 더 두고 봐야 하겠지만, 개인과 집단 중 어디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하는가의 문제는 좀 더 깊은 생각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최용섭 기자)

정경영·조우량 LG

사랑과 사업을 번영시킬 고객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최고의 인재와 최상의 팀워크를 갖춘 조우량 정보통신회사 -
세계 최초 CDMA기술 상용화의 기술과 경험을 갖춘 회사 -
정도경영의 믿음 아래 정직과 성실의 길을 걸어가는 회사 -

LG텔레콤의 019 PCS가 그동안 예약가입자 모집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10월 1일 전국 상용서비스를 앞두고 고객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는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LG텔레콤의 기업이념인 사랑과 사업을 주제로 하는 TV-CM, 슬로건, 브랜드 심볼마크 아이디어의 공개모집입니다. 019 PCS에 대한 고객의 바람을 정확히 파악하고 고객이 원하시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입니다. 보내주신 의견을 충실히 저희의 사업에 반영하겠습니다. 새로 출발하는 019 PCS의 발돋움에 힘을 실어주시요.



공모내용

주제	고객의 사랑을 깊게 하고, 사업을 번영시키는 LG텔레콤 019 PCS
공모 부문	TV-CM ① 콘티는 15초 기준 ② 콘티와 스토리를 각각 A4 용지에 정리 슬로건 019 PCS의 브랜드 특성을 나타내는 문인 10자 이내로 A4 용지에 정리하고, 그 의미를 설명 심볼마크 ① 019 PCS 로고 포함 ② 심볼크기 15cm×15cm ③ 색상은 3도 이내 ④ A3 규격으로 제출
상금 및 상품	• 으뜸상-부문 통합 1인/상금 1천만원(세금포함) • 으뜸상-각 부문 1인/각 상금 5백만원(세금포함) • 열렬상-각 부문 2인/각 상금 2백만원(세금포함) • 두루상-각 부문 10인 이상/LG PCS폰(LG1000F) 증정 및 무료가입
응모처	우편번호 135-605 서울 강남우체국 사서함 528호 공모 담당자 앞
응모마감	97년 10월 20일-미감일 우체국 소인 유효
수상작발표	97년 11월 3일자 스포츠서울
문의 및 안내	LG텔레콤 홍보실 광고 담당 02)3466-3323, 3324

* 제출된 모든 작품은 반환이 불가하며, 작품에 관련된 아이디어 등 저작권도 LG텔레콤으로 귀속됩니다.
* 제출 용고자의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십시오.

사랑의 메신저, 사업의 동반자-

019 PCS